

# 대만의 한국학 연구 상황과 미래 전망

曾天富\*

## 〈차 례〉

1. 양국의 교류와 1980년대 이전의 한국연구
2. 韓國學會의 성립과 2000년까지의 한국연구
3. 최근 20년간의 한국연구 동향
4. 대만의 한국연구 추세와 미래전망

## [국문초록]

대만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웃일 뿐 아니라 오랜 역사적 교류와 문화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식민과 냉전의 공통된 근, 현대 역사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일찍부터 양국 간의 교류가 있어왔고 그에 따른 한국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본문은 해방 후 대만의 한국학 상황을 크게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연구초점과 추세를 살펴본 후 각 시기의 주요특징에 대한 해석을 기초로 앞으로의 연구를 전망해 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냉전시기인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주로 반공연대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사료를 중심으로 한 한국고대사 연구와 근대항일 독립운동과 중국과의 관련성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한국어 문학과를 통해 양성된 전문 인력들에 의한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양국이 동일하게 추구한 급속한 산업화와 세계경제체제에서의 비슷한 위치로 인해 경쟁자인 동시에 서로를 비추는 거울로서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양국 경제상황의 비교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한류의 급속한 전파로 촉발된 한국어 학습수요에 맞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전반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대만, 한국학, 한국어교육, 韓國學報

\* 臺灣 東吳大學 教授

## 1. 양국의 교류와 1980년대 이전의 한국연구

대만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웃일 뿐 아니라 오랜 역사적 교류와 문화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식민과 냉전의 공통된 근, 현대 역사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일찍부터 양국 간의 교류가 있어왔고 그에 따른 한국연구가 진행되었다. 전근대 시기는 차치하고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조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시기는 19세기말 소위 서세동점이라는 서구열강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를 동아시아 근대의 기점으로 파악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지속되던 전근대적 질서인 조공체제가 무너지고 근대적 질서인 공법체계가 시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1800년대 후반기 서구열강과 일본의 조선침략은 지역질서에서 조선의 지위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건이었고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으로 인해 청조의 조선 이해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1870년부터 조선이 일본에 병합된 1910년 사이에 조선정세에 대한 관찰기록, 輿地, 風俗, 史略 등의 문장을 비롯하여 梁啓超의 한일병합에 대한 논설 등 중한관계에 대한 많은 문헌들이 생산되었고 신문과 잡지 등 근대의 공공영역이 형성되면서 조선정세와 일본의 침략에 대한 보도와 분석이 본격적으로 생산되었다. 특히 조선인의 거주지이며 국경을 마주하고 있던 간도지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sup>1)</sup>

이러한 광범한 조선지역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신해혁명 후 성립된 초기 정부인 北洋政府시기부터 중국 자체의 내부혼란과 일본에 의한 조선의 병합으로 인해 침체기를 맞았다가 1945년 이차대전의 종결과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철수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다. 식민 지배의 종식으로 한국은 다시 세계사에 등장했고 194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세계냉전체제가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을 기점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고해지는 과정에서 대만과 한국은 자유진영에 편입되어 반공맹우로서

1) 張存武, 『近代中韓關係史的研究』,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六十年來的中國近代史研究』 下冊, 1988, 458쪽.

연대했으며 이러한 교류는 탈냉전의 도래로 불리는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동시에 양국은 경제적으로 수출지향의 가공업 위주의 발전모델을 채택하여 경쟁관계에 놓이기도 하면서 세계정세와 동아시아 역학관계 속에서 서로를 비추는 거울로 상호를 인식해 왔다. 특히 정치적 민주화와 포스트모던 사회의 도래, 전지구적 자본주의 발전이란 동일한 변화와 함께 독립과 통일의 각기 다른 지향이 가져온 각자의 도전 앞에서 때로는 협력의 필요성이 때로는 상호 이해가 더 필요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 1992년의 국교단절은 세계정세의 변화와 동시에 양국이 추구하는 다른 지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면서 이전의 국가 간 정치적 관계에서 민간의 문화적 관계로 교류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계기였다. 또한 대만 내부의 탈중국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양국의 관계는 탈냉전과 자본주의 전지구화 추세의 대응이라는 유사점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지점이 생겨나게 되었고 한류라는 한국대중문화의 압도적 영향이 이전과는 다른 교류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이러한 양국 관계와 교류사에 기초하여 1945년 이후 대만의 한국학 상황을 단계적으로 개술하고 각 시기의 연구초점과 추세를 살펴본 후 주요특징에 대한 해석을 기초로 앞으로의 연구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그중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냉전 초기의 한국학 개황은 기존 연구<sup>2)</sup>를 참고하여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2000년을 기준하여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국민정부의 대만 철수 이후 1970대까지 대만의 한국연구는 동아시아 냉전체제가 형성되고 양국이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에 편입되면서 반공의 공동보루로 연대를 형성하게 된 결과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기존 연구의 통계에 따르면, 내용면에서 1950년대 초기에는 군사와 국방 관련이제가 전체의 70.59%를 차지하였고, 1950년대 후반에는 외교와 국제관계, 중한교류 의제가 전체의 40%를 점하고 있으며 주로 『民主評論』

2) 黄寬重·張表怡, 「海峽兩岸中韓關係史研究的回顧與展望」,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韓國學報』 16期, 2000, 3~24쪽.

(1949)과 『自由中國』(1949), 『中韓文化論集』(1955), 『大陸雜誌』(1950)에 발표되었다고 한다. 또한 1960년대의 연구초점은 南韓政局, 統一問題 등의 한국 內政과 중한관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교와 국제관계로 앞선 시기의 『중한문화논집』, 『대륙잡지』 이외 『政治評論』(1958), 『新時代』(1969) 등의 잡지와 지역학 전문잡지인 『問題與研究』(1956), 『東亞季刊』(1969) 등에 주로 실려 있고 1970년대에는 기존의 中韓關係와 한국의 국제관계 의제 이외에 특히 재정과 경제 관련의제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한다.<sup>3)</sup> 이러한 추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시대상황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한국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1950년대 초기에는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군사와 국방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후 반공연대의 기조에서 중한관계가 논의됨에 따라 국제관계 속에서 양국의 교류와 공조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1960년대 양국의 경제개발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한국의 경제개발모델과 세계경제구조의 변동에 대한 대처방식 등에 대한 이해의 수요가 생겨났다고 보여 진다. 이밖에 1970년대 후반기에 이르면 한국연구가 질과 양 두 방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구주제도 한국의 학술사상, 문학, 역사부문으로 확대되었는데 동아시아의 냉전구조 고착화로 인해 兩岸과 兩韓정세가 상대적으로 안정됨과 동시에 1956과 1963년 정치대학과 문화대학에 한국학 관련학과가 개설되면서 연구자의 육성이 가능했던 것과 관련성이 있다.<sup>4)</sup> 이 두 대학은 지금까지 대만 내 한국어학, 한국어교육, 한국문학과 문화전반에 대한 연구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여러 대학과 자매결연 등 교류관계를 유지하면서 매년 세미나를 통해 한국학계와 교류하고 있다.

냉전초기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학 관련 논문집의 출판인데 대표적인 것으로 『중한문화논집』<sup>5)</sup>을 들 수 있다. 1955년 李迺揚이 主編한 1집이 나온

3) 金潤泰, 『由韓國學者角度看台灣的韓國研究』, 中央研究院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 『亞太研究論壇』第三十期 2005.12. 이 연구에 따르면 1949년 이전의 한국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내정, 외교 및 국제관계였고 1950년대 초기에는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국사와 국방이 주목받았으며 1950년대 후기에는 외교와 국제관계, 그리고 중한문화교류가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다고 한다.

4) 1956년 국립정치대학과 1963년 중국문화대학에 東方語文學系韓文組가 설립되었고 각각 2000년과 1994년에 韓國語文學系로 독립 승격했다. 두 대학에 현재 한국어문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5)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出版, 1955.

후 당시 文化學院의 설립자인 張其昀이 이어 5집까지 출간했다. 이 논문집은 1955년부터 1978년까지의 한국연구 관련논문을 수집하여 냉전시기 대만의 한국학 상황을 개관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겠다. 1955년에 출간된 1,2권에 실린 논문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董作賓, 檀紀和中國古史年代
- 石璋如, 石器時代的慶州與安陽
- 李迺揚, 史前時代的朝鮮半島
- 芮逸夫, 韓國古代民族考略
- 梁嘉彬, 從韓國「明刀」出土看東漢以前的中韓交流
- 宋希尚, 漢代的水利專家-樂浪人王景
- 嚴耕望, 新羅留唐學生與僧徒
- 姚從吾, 唐客卿高麗高仙芝遠征恒羅斯與中國造紙術的西入歐洲
- 李光濤, 記李氏朝鮮實錄
- 吳相湘, 李朝實錄對於明清史研究之貢獻
- 宋晞, 韓國抗日名將李舜臣
- 韓道誠, 俄國早期侵韓陰謀的被阻
- 郭廷以, 中韓文化同源舉隅
- 梁容若, 從文化上看中韓交流
- 王大任, 中韓風俗古今異同考
- 蔣復璁, 中韓書緣
- 蘇瑩輝, 中韓金石文字因緣
- 彭國棟, 中韓使節詩話
- 王益厓, 地理觀點上關係密切的中韓
- 宋希尚, 中韓的交通
- 勞榦, 中韓關係論略
- 李迺揚, 中韓一家
- 臧啓芳, 中韓對世界的共同責任
- 李士英, 中韓兩國需要長期合作

이 논문집의 목록을 제시한 이유는 1950년대부터 향후 20년간 대만학계의 한국연구가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목록에서 보듯이 선사 시대를 포함한 唐代 이전의 고대사 연구가 6편, 唐代 신라, 고려와의 관련연구가 2편, 조선 시기 연구가 4편, 풍속을 포함한 중한의 문화관계 연구가 9편, 當代의 협력 필요성을 설파한 문장이 2편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사와 관련한 한국역사연구가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董作賓(1895~1963), 李光濤(1897~1984), 郭廷以(1904~1975), 宋晞(1920~2007), 梁容若(1904~1997) 등 중국역사, 고고학, 문헌학 등을 연구한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한국사 연구에 참여한 것이 가장 크다. 1949년 국민정부와 함께 대만으로 온 이들 학자들은 중앙연구원의 창설에 직접 참여했으며 중앙연구원의 역사 언어연구소 혹은 근대사연구소에서 재직하는 동안 한국관련 연구를 많이 생산했다. 이들이 양국의 전근대사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풍부한 사료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인데, 중한관계논저의 목록을 분류하고 정리한 黃寬重과 張婁怡의 논문에 의하면, 자료의 출처는 식민지 시기 조선총독부에서 타이베이제국대학으로 증정한 한국 고적과 1949년 국민정부가 대만으로 철수하면서 옮겨온 역사고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해 506부에 달하는 한국고적이 지금도 대만의 여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sup>6)</sup> 이를 기반으로 진행된 역사연구는 앞서 보았듯이 상고시기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광범위한데 상술한 목록의 내용 외에도 기자조선 문제, 唐玄宗 시기와 東夷國, 隋唐과 고려, 後三韓과의 관계, 遼와 고려의 관계에서부터 명나라 시기의 임진왜란 연구, 청나라 시기 조공무역과 互市, 연행록과 박지원 연구에 이르기까지 각 역사시기에 걸쳐 있고 1950년대 이후에도 『朝鮮壬辰倭禍研究』(1972), 『淸韓宗藩貿易:1637~1894』(1978) 등의 학술서적이 꾸준히 출판되었다.

이렇게 초기 연구가 중앙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1960년대 이후에는 각 대학의 역사학과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참여하면서 고대사에서 근대

6) 黃寬重·張婁怡, 「海峽兩岸中韓關係史研究的回顧與展望」,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韓國學報』 16期, 2000, 3~24쪽.

사로 연구초점이 옮겨가는 추세를 보인다. 주요 연구자로 정치대학 역사학과와 胡春惠(1937~2016) 교수를 들 수 있다. 그는 근대 양국관계에 중점을 두고 특히 중국에서의 한국독립운동과 관련한 연구서 『中國與韓國臨時政府之關係』(1972), 『中國革命與韓國獨立運動』(1972), 『韓國獨立運動在中國』(1976)을 출간했다. 한국임시정부의 활동과 중국국민당의 관계를 통해 본 한국독립운동에 있어서의 중국의 협력이란 연구주제는 냉전시기 대만의 한국연구에서 상당히 중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范廷傑, 蕭錚 등도 관련연구를 진행했고 한국독립운동의 사료를 모은 『中國協助韓國光復運動史料』(1965)도 편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승만의 중국활동이나 신규식과 중국의 혁명지사와의 우의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졌다.

한국역사 이외 한중의 문화교류를 주제로 한 연구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아 중국문화가 한국에 미친 영향이란 측면에서 고찰되었다. 가령 중한양국의 풍속 차이, 불교의 한국 전래와 주자학의 한국 전파, 漢詩가 한국시에 미친 영향, 한국詩話의 연원에 대한 고찰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中韓文化與文學』(1958), 『中韓民族與文化』(1968), 『中國文化對日韓越的影響』(1980) 등 구체적인 학술성과가 나왔다.

또한 한국전쟁 시기에 주한국 대사였던 邵毓麟(1909~1984)의 회고록 『使韓回憶錄』(1980)도 출판되면서 양국 간의 우의와 반공맹우로서의 관계가 보편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앞서 본 『중한문화논집』은 大韓民國李大統領八秩榮慶祝賀論文集임을 밝히면서 이대통령 부부의 사진과 中韓唇齒라고 쓴 그의 붓글씨를 싣고 있으며 中韓關係大事年表 이외에도 중앙국립도서관이 편찬한 中國關於韓國著述目錄, 中國刊行韓國著述目錄, 臺灣公藏高麗本聯合目錄 등을 부록으로 첨가해 당시 대만의 한국관련 사료와 연구논저목록을 총망라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집에는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제시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양국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문장이 실렸는데 그중 李迺揚의 『中韓一家』<sup>7)</sup>는 한국역사의 특징, 역대의

7) 董作賓 外, 『中韓文化論集』(二),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出版, 1955, 399~422쪽.

수도, 한국문화의 본질, 중한역사의 회고, 중한양국의 역사임무의 5개 부분으로 나누어 고대부터 당시까지의 한국의 역사를 회고하고 자연과 지리환경, 문화적 특성에서 중국과의 문화적 친연성을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항해야 함을 호소하고 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국민정부의 대만철수로 反共抗俄 주장이 당면한 국가정책으로 대두하였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체제가 강고해지면서 양국은 공산정권에 대항하는 동시에 국가재건의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동일한 처지였다. 따라서 이 시기 한국에 대한 연구는 반공이란 시대적 과제로부터 시작된 한국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동시에 반공에 공동 대항하는 협력 대상자로서의 한국에 대한 담론 성격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기존 사료를 기초로 한 한국역사 연구와 문화적 친연성을 강조하는 양국관계사, 그리고 당대 반공담론의 구축이란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하겠다.

## 2. 韓國學會의 성립과 2000년까지의 한국연구

1949년 앞서 1970년대를 분기점으로 정한 이유는 이를 경계로 하여 전후 다른 추세를 보이기 때문인데, 그중 가장 큰 차이는 연구자의 세대교체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전 시기 대륙에서 건너온 역사학자들에 의한 사료 중심의 한국사 연구와 냉전과 반공의 이중 구조 속에서 반공 필요성에 의한 한국담론이 중심되었다면, 1980년대 이후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1950년대 후반에 설립된 대학의 한국어문학과를 통해 배출된 인력이다. 이들은 전시기 연구자들의 주도에 힘입어 1980년 중화민국한국연구학회(한국학회로 간칭)를 창립하고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후원 아래 매년 『한국학보』를 간행해 오고 있고(현재까지 36기가 나와 있음) 비정기적으로 한국학국제회의의 논문집을 모은 연구총서도 따로 출판하고 있다. 현재 한국학회의 구성



원은 주로 정치대학과 문화대학의 한국어문학과 소속 교수를 주축으로 하고 그 외 한국관련 국내학자와 대만에서 활동하는 한국학자들이며 이들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학술활동을 기획, 실천하고 있다. 설립 초기인 1983년에 중앙연구원의 찬조 하에 대만, 한국, 미국과 일본 각지의 중한관계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성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한 이후 반세기 동안 거의 매년 빠짐없이 연구자 모임과 토론을 통해 대만 내 한국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고 『한국학보』는 그 구체적인 성과물이다.

2000년 이전의 연구 성과를 1기부터 15기까지의 목록을 통해 일별해 보면, 우선 1기(1981)부터 4기(1984)까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논저, 역술, 보도, 사료, 評介, 演講紀要, 轉載 등 항목을 나누어 개별 학술논문 뿐 아니라 한국관련 자료의 번역과 소개, 국내의 관련 학술회의와 각국의 한국연구 개황을 보도하는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국학회 이외의 대만 내 한국관련 행사나 논문에 대한 소개도 싣고 있어 1980년대 초반기 대만의 한국연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5기부터 13기(1995)까지는 따로 항목을 세분하지 않고 학술논문을 실었고 필요할 경우 사료나 관련 보도내용을 부록으로 실었다. 그리고 14기(1996)부터는 거의 대부분 語言文學組, 歷史文化組, 政治經濟組로 분류하여 학술논문을 수록하고 한국연구의 개황이나 한국사회에 대한 전반적 관찰을 내용으로 하는 문장을 專題報告로 실었다.

『한국학보』에 실린 논문을 통해 이 시기 한국연구 개황을 살펴보면, 약 320편 중 조선시대 이전의 고대사 연구가 106편, 한말과 근대사가 35편, 정치, 경제 무역을 포함한 한국현대사와 현황이 48편, 고전문학 위주의 한국문학이 38편, 한국어 연구가 14편, 그 외 한국문화와 한중교류관계사가 11편을 차지하고 있다. 이 통계는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전시기와 비교해 변화된 추세는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앞서 본 대로 1949년 이후 대만의 한국연구가 국민당정부와 함께 중국대륙에서 건너 온 역사학자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들의 사료에 의거한 고대사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 추세가 1980년대 이후까지도 지속되었다는 점이다.<sup>8)</sup> 다만 전시기와 비교해 볼 때 한말과 근대사 연구가 좀 더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청일전쟁시기의 중한관

계, 康有爲와 梁啓超의 한국영향, 신채호의 滿洲觀, 간도문제, 동학농민운동 연구, 한말 의병과 유학연구, 만보산 사건 등 전시기 한국독립운동과 중국의 관계에 치우쳤던 근대사 연구가 더욱 다양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한국어문학과를 통해 육성된 인재들이 대거 한국문학과 어학 연구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징은 근현대문학보다 고전문학연구가 우세하고 어학관련 논문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근현대문학 연구에 대한 편견이 존재했던 1970,80년대 한국학계의 연구경향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유학을 거쳐 교직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현지 대학에서 근현대문학을 접할 기회가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전문학은 한문소설, 박지원과 열하일기에 치중되어 있고 문화대학의 陳寧寧에 의해 1920년대 김동인 소설, 1970~80년대 민족민중문학 등 한국 근현대문학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 한국현황 특히 남북한 관계와 한미관계를 중점으로 하는 정치, 한국의 대외무역과 경제정책을 고찰한 경제적 측면의 학술논저들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중한간의 대외무역발전 비교, 남한의 토지개혁, 남한의 직업교육, 한국농촌의 변천과 인구의 유동상황, 한미관계, 한국화교정책,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소개, 1990년대 중국의 남한정책, 남한의 정치민주화 경험, 중한 양국의 민족분열과 그 차이점, 1980년대 후기 남한의 아세안 정책, 한국의 북방정책과 통일문제, 한국의 섬유공업과 수출동향, 중한 경제정책 비교연구 등의 의제가 연구대상이 되었다.

그 외 유럽, 미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한국연구현황을 주시하고 정리 분석하고 있으며, 강동엽, 고승제, 이성무, 윤병로, 강희웅, 정량완, 강신항, 류탁일 등 학술회의에 참여하거나 교환교수로 대만에 와 있던 한국학자들의 연구논문도 중문으로 번역해 신고 있어, 한국학회가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영향을 받으면서 대만 내 한국학의 내용과 규모, 방향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8) 가령 1980년대 黃寬重교수가 진행한 다음과 같은 연구를 들 수 있다. 『高麗與金、宋的關係』, 『南宋史研究集』, 新文豐出版公司, 1985, 265~305쪽; 『高麗與金宋關係年表』, 『大陸雜誌』 74卷 1~6期, 1987; 『南宋茶商武力的發展: 內亂與禦侮』, 『國史釋論』 上冊, 食貨出版社, 1987~1988, 147~165쪽, 1987.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한국학보』와 유사한 구성의 『한국연구』도 발간되었는데 주로 문화대학 구성원들이 주축이 된 중화민국 留韓同學聯誼會 명의로 발행된 학술지로 1978년 창간 후 모두 12기(1994)가 나와 있다. 내용은 문학언어, 정치, 경제, 무역, 신문방송, 사료 등으로 분류하여 논문을 싣고 있으며 연구의 초점은 주로 당대 한국사회에 두고 있다. 참고로 11期(1993)는 北韓專論으로 북한의 언어, 한자교육에서부터 남한과의 차이점, 경제무역,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 등을 다루고 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부록으로 싣고 있다.

이들 학술지에 실린 논문 이외 이 시기 한국근현대사 연구에 필수적인 사료와 자료가 정리, 출판되었는데 한국학자 金渭顯이 펴낸 『高麗史中中韓關係史料彙編』(食貨出版社, 1983),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에서 펴낸 『國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1988), 한국학자 朴現圭가 정리한 『臺灣公藏韓國古書籍聯合書目』(文史哲出版社, 1991), 그리고 國史館에서 펴낸 『近代中韓關係史資料彙編』(1987)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12冊으로 구성된 『近代中韓關係史資料彙編』은 중앙연구원의 張存武(1929~), 趙中孚교수와 정치대학 역사학과 胡春惠교수가 다년간 수집, 정리한 한중관계사 자료로 전체 700여만 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인데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 (1)華字日報(1895-1940)-1358筆
- (2)中國日報-1053筆
- (3)天津大公報1(1902-1928)-1568筆  
     天津大公報2(1929-1934)-265筆  
     天津大公報3(1935-1948)-474筆
- (4)上海大公報(1937-1945)-19筆
- (5)重慶大公報(1941-1946)-185筆
- (6)民呼日報(1909)-10筆
- (7)民吁日報(1909)-38筆

- (8) 民立報(1910-1913)-88筆
- (9) 中華新報(1917)-13筆
- (10) 上海時報1(1909-1923)-595筆  
    上海時報2(1924-1937)-1114筆
- (11) 上海申報(1912-1924)-631筆
- (12) 重慶中央日報(1945-1948)-72筆
- (13) 外交報(1907-1910)-396筆
- (14) 東方雜誌(1904-1977)-67筆
- (15) 民報(1908)-1筆
- (16) 桂林南報(1911)-8筆
- (17) 民國彙報(1912)-2筆
- (18) 民權報(1912)-3筆
- (19) 民國日報(1919)-27筆
- (20) 新潮(1919)-2筆
- (21) 星期評論(1919)-3筆
- (22) 建設雜誌(1919)-2筆
- (23) 白山學報(1966)-8筆
- (24) 姜瑋全集(下)-3筆
- (25) 朴珪壽全集(上)-7筆
- (26) 白山學報-6筆
- (27) 明美堂集選-68筆
- (28) 申箕善全集選-2筆
- (29) 市南先生文集選-16筆
- (30) 『籌辦夷務始末』有關朝鮮資料選輯-42筆
- (31) 金玉均全集選-7筆
- (32) 金弘集遺稿-5筆
- (33) 魚允中全集-9筆
- (34) 『宋教仁先生文集』資料選-11筆

- (35)素昂集-3筆
- (36)「項城袁氏家集」資料選-47筆
- (37)養壽園電稿及其他-10筆
- (38)容菴弟子記-1筆
- (39)「張季子九錄」資料選-17筆
- (40)「日本雜事詩」及「六十年來中國與日本」節選-10筆
- (41)「飲冰室文集」有關朝鮮資料選及其他-18筆
- (42)金允植全集(二)資料選-28筆
- (43)「外交部檔案」及「總統府機要檔案」資料選-16筆
- (44)「小方壺齊輿地叢鈔」資料選-149筆
- (45)金澤榮全集(一)資料選-33筆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자료는 1900년대부터 1940년대 후반기까지로 집중되어 있으며 극소수의 1960~70년대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이 식민지로 병합된 시기를 전후하여 해방직후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의 출처는 중국의 주요 신문과 잡지의 한국관련보도가 가장 많고, 그 외 申箕善, 金澤榮, 金允植, 魚允中, 金弘集, 金玉均, 趙素昂 등 한국 근대정치가의 문집, 張謇, 沈祖憲, 吳闈生, 梁實秋, 宋教仁 등 중국 문인과 정치가의 문집, 袁世凱의 電報와 袁氏家集, 그리고 백과전서, 외교부와 총통부의 당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시기상 1909년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1919년 삼일운동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중국내의 한국독립운동과 간도문제 등도 많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자료가 수집 정리, 출판됨에 따라 이 시기 한국근대사와 중국과의 관계 연구가 많이 생산될 수 있었다.

이 자료집의 주요 편자이면서 중한관계사연구의 대가인 張存武는 서문에서 중한관계의 중요도로 볼 때 많은 연구자의 참여가 필요하여 자료집을 편찬하여 연구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동기를 밝히면서 정리와 출판에 당시 서울대학교 김학주 교수의 소개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찬조가 있었고 1983년 8월부터 자료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들 자료는 극소

수의 개인 소장 이외 대부분 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던 것으로 46종 문헌에서 발췌한 것이며 신문 12종, 잡지 6종, 문집 20종, 외교당안 3종, 총서 1종, 기타 전문서적이며 그중 조선문집은 11종이고 백산학보는 모두 한국어 자료라고 한다. 장교수의 정리에 의하면 1900년대의 중한, 중일간의 간도문제에서부터 광복 후 40년 동안의 北拓論에 이르기까지 중한양국의 근현대사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이며 淸光緒시기 조선, 중국, 일본 관계사와 청조의 외교사료는 이미 출판되어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동시에 이 자료집의 특색으로 ①朝章奏議, 日記, 詩歌, 깊이에 차이가 나는 각종 신문보도가 섞여 있어 복잡하지만 그만큼 풍부하기도 하며, ②군사, 정치, 무역보다는 문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③색인기능이 있어 연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었을 때 중국정부의 성원과 독립운동에 제공한 편의, 양국이 함께 진행한 항일운동 등을 들어 양국간의 긴밀한 관계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사료에 근거하기 보다는 미국의 시각으로 동아시아 근대사를 보는 연구자가 많아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양국 학자들이 자국의 이익에 우선하는 시각에 얽매이지 말고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이 자료집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sup>9)</sup>

이외에도 또한 이 시기는 그간의 한국연구 저작목록을 정리한 『中韓關係研究中文著作目錄』(1987)<sup>10)</sup>도 나와 1980년대 후반기까지의 한국학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너무 방대한 분량이라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으나 동일하게 양국이 가공업 위주 수출주도 경제개발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전시기에 비해 경제, 무역관련 연구가 현저하게 증가했고,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의 여파로 중한관계와 교류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9) 「張序」, 『近代中韓關係史資料彙編』第一冊, 國史館印行, 1987, 3~7쪽.

10) 이 자료집은 2000년에 중국대륙까지 포함하여 중국어로 된 한국관련연구자료집으로 출판했다. 수집한 논문은 7,409篇, 서적은 1,391篇로 모두 8,800篇에 달해 원래 자료집의 5배 규모이다.

### 3. 최근 20년간의 한국연구 동향

당대사에서 대만과 한국간의 관계를 논할 때 1992년의 국교단절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1980년대부터 형성된 세계적인 탈냉전의 기류가 반공 혈맹으로 여겨졌던 두 분단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변화된 세계 정세를 실감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물론 정치적 냉전의 해체와 세계무역체제의 형성이라는 두 가지 변화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당시 대만 언론과 여론의 동향을 보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비춰졌다. 1970년대 초 유엔에서의 탈퇴, 중국이 천명한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연이은 단교사태를 겪으면서 국제적 고립감이 가중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교단절은 향후 10년간 양국의 상호 국적기 취향이 단절되는 등 상당한 여파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중국체제의 허위성을 한 번 더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대만 내부의 오랜 정치민주화 운동이 1987년 계엄해제를 계기로 정치세력화하면서 중국과는 분리된 별개의 국가인 대만을 지향하게 되면서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었다. 한국연구 역시 중한관계사로 인식되었던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대만학의 상대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성격으로 변모하였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소위 한류라고 불리는 한국대중문화의 유입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한국어 수요도 크게 늘어나 기존의 政治大學과 文化大學 이외 남부지방에 위치한 가오슝(高雄)대학에 한국어 관련학과가 신설되었고 기타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 과정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특히 한국이 19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 세계 경제체제에 안착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문화 수출국의 위치로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한류현상이 초래한 한국에 대한 관심의 고조, 한국어 수요증가와 함께 한국연구의 방향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의 한국연구 개황을 전시기에 이은 한국학보, 기타 관련 학술지와 개별 연구자의 동향을 통해 파악해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한국학보』 소재 논문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1권

으로 200편 가량인데 간략하게 내용별로 분류하면 고대사 19편, 근현대사 17편, 정치외교 18편, 경제무역 25편,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각 12편, 어학을 포함한 한국어 교육 41편, 사회현황 11편, 북한연구 7편, 한류와 문화산업 27편으로 통계되었다. 앞 시기와 비교할 때 가장 큰 변화는 고대사 연구의 비중이 대폭 하락했으며 정치외교와 경제무역, 사회현황을 포함한 당대 한국에 대한 연구가 상승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동시에 한류 관련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대만에서의 수용원인, 한국 드라마와 K-POP의 내용분석, 한국의 대중문화산업, 한류의 기반이 되는 한국 전통문화 분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되었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관련 논문도 상당히 많이 나와 한류로 인한 한국어 교육의 수요증가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兩岸 상황과의 비교 시각으로 보는 남북한 문제,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의 변화 등도 주목했으며 WTO체제하 한국의 대외무역과 각종 FTA협정 체결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논문도 생산되었다. 이 시기 한국학보에 실린 당대연구 개황을 두 차례의 특별기획 관련논문의 목록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亞洲價值與21世紀東北亞秩序』會議論文(『韓國學報』17期, 2002)**

呂 凱, 儒家古學今用思想之研究

陳寧寧, 黃順元短篇小說研究

葉泉宏, 東亞忠義精神之比較研究-以中韓朝代轉換期為例

鄭錫元, 儒家天道觀念與韓國古代政治

崔永鎬, 東亞細亞價值與現代韓國的民族主義

百奉鍾, 中國的世界秩序與西歐的近代國際秩序的比較-以和平與戰爭為中心

尹龍熙, 韓半島周邊四強的利害關係變化與南北關係的展望

**兩韓政治與經濟特刊(『韓國學報』27期, 2015)**

唐彥林, 中韓關係新特點分析



張慧智, 中韓亞歐合作構想對接：機遇與挑戰

李鍾林, “一帶一路”戰略的東北亞延伸與中朝合作

金強一, 金正恩執政後朝鮮的政治路線

張少文, 中朝漁業糾紛之探析

劉德海, 廿一世紀韓國與印度的經貿互動

상술한 특별기획에서 보듯이 전시기의 역사연구에서 당대 한국사회를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민간부문의 빈번한 교류가 시작되면서 한국, 중국대륙 연구자들이 회의에 참여하는 빈도가 큰 폭으로 늘어났고 이로 인해 이전의 중국어 일변도에서 한글논문이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학보』 이외 政治大學과 文化大學도 따로 논문집을 내고 있다. 정치대학의 경우 2001년부터 학과 명의로 2期の 학술지 『한국어문연구』를 출간했는데 이는 한국어 문법과 어학연구, 한국어 課程설계에 초점을 맞춘 한국어교육 전문지이고, 2016년부터 학과 소속의 韓國文化教育中心에서 발간하는 『한국문화교육연구』(현재까지 5기가 나옴)는 한국어학, 한국어 교육, 문학, 역사와 문화를 망라하는 학술지를 표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논문의 목록을 보면 한국어 교육, 한국영화 등 대중문화 연구, 각국의 한국학 상황에 치중되어 있다.<sup>11)</sup> 文化大學의 경우는 2001년에 陳寧寧교수와 정치대 정치외교학과 劉德海교수 共著의 『韓國研究導論』을 낸 바 있는데 정치, 경제, 외교, 교육, 종교, 문예로 나누어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고 있다. 이 두 대학 이외 2008년에 신설된 가오슝대학의 東亞語文학과 韓語組와 2017년 동 대학에 설립된 韓國研究中心 소속 한국학자의 연구서적도 최근에 출판되었는데 목록은 아래와 같다.

河凡植主編 臺韓關係的發展：過去、現在以及未來 (臺北：翰蘆，2018年)。

11) <http://k-education.nccu.edu.tw/papers.html?page=4>

河凡植主編 臺韓關係：交流、合作以及政策比較(臺北：翰蘆，2019年)

李京保 韓國語 漢字語와 漢字語 教育 研究(臺北：翰蘆，2018年)

李京保、劉素晶 初級韓國語詞彙(臺北：翰蘆，2019年)

그 외 몇몇 개별 연구자들의 최근 20년간의 연구 성과를 개괄해 보면, 정치대학 외교학과 교수인李明, 劉德海, 國際關係研究中心 연구원 蔡增家 등은 한국의 정치외교와 경제무역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상당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가장 최근의 논문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외무역 기조, 남한과 이란 관계에서의 미국요인,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시진핑의 한반도 정책, 북한의 미사일 위기, 최근의 남북한 회담 등으로 이들은 대만 언론에 한국정세와 남북한 관계, 한국의 경제무역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정치대 외교학과 교수 盧業中은 동북아시아 정세와 6자회담, 한반도의 안보위기 등 주로 지역 안보 범주에서 한반도 정세를 연구하고 있다.<sup>12)</sup> 가오슝대학의 한국학자 하범식 교수도 한국의 FTA 협상 과정, 김정은 시대의 한반도 탈핵화 가능성, 한국정계의 구조 등에 관련한 논문을 출간하는 동시에 대만의 정치상황을 한국에 소개하는 쌍방향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sup>13)</sup>

한국어와 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정치대학, 문화대학과 고웅대학의 한국어문 관련학과 소속 교수들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기존의 언어학적 시각의 한국어학 연구에서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의 설계 등의 방면으로 연구의 방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한국어 뿐 아니라 한국문학과 전통을 어떻게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sup>14)</sup>

12) 이들 연구자의 연구저작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

李明 <https://diplomacy.nccu.edu.tw/PageStaffing/Detail?fid=4843&id=1359>

劉德海 <https://diplomacy.nccu.edu.tw/PageStaffing/Detail?fid=4843&id=1357>

蔡增家 <https://iir.nccu.edu.tw/PageStaffing/Detail?fid=7111&id=2533>

盧業中 <https://diplomacy.nccu.edu.tw/PageStaffing/Detail?fid=4843&id=1353>

13) <https://deal.nuk.edu.tw/p/405-1049-26176.c3166.php?Lang=zh-tw>

14) 정치대학과 문화대학, 가오슝대학의 한국어문학과 웹사이트 주소는 각각 다음과 같다.

한국 근현대문학의 연구는 한국국적의 정치대학 대만문학연구소 최말순 교수와 슈핑(修平)과기대학 김상호 교수를 들 수 있는데 전자는 식민지와 냉전시기 양국문단과 소설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역사시기 양국의 문학이 시대적 과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비교시각으로 고찰하면서 당대 한국소설의 현황도 지속적으로 대만학계에 소개하고 있고,<sup>15)</sup> 후자는 양국의 현대시를 대상으로 소개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sup>16)</sup> 이들 연구는 기본적으로 대만과 한국의 유사한 역사경험을 토대로 이 시기 국가문학으로 정립된 대만문학을 비추는 거울로써 한국문학이 어떻게 시대, 역사적 과제에 대응했는지를 고찰하면서 대만문학의 연구시야를 넓히고 동아시아적 시각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4. 대만의 한국연구 추세와 미래전망

본문에서 정리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1950년대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철수한 후부터 20년간은 사료를 중심으로 한 고대사 위주의 연구, 근대 항일독립운동과 중국과의 관련성에 한국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졌고 이와 더불어 반공연대의 필요성에 역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한중관계사 연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일찍이 1950년대 중반에 대학에서 한국어관련학과가 설립되는 기반이 되었고 후대의 대만 한국학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다음 단계인 1980년대 이후부터 2000년까지는 전시기의 한국역사학 기반 위에서 고대사보다는 근현대사 위주의 연구가 지속되는 한편 한국어문학과를 통해 양성된 전문 인력들에 의한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

---

<https://korean.nccu.edu.tw/PageDoc/Detail?fid=2138&id=173>

<https://kor.pccu.edu.tw/bin/home.php>

<https://deal.nuk.edu.tw/>

15) <https://tailit.nccu.edu.tw/PageStaffing/Detail?fid=2721&id=261>

16) <https://lms.hust.edu.tw/blog.php?user=kaohsiung0&f=portfolio>

되었고, 양국이 동일하게 추구한 급속한 산업화와 세계경제체제에서의 비슷한 위치로 인해 경쟁자인 동시에 서로를 비추는 거울로서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따라서 GATT나 WTO체제하 한국의 대응에 대한 연구가 많이 생산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대만의 한국학 연구자들을 망라한 중화민국 한국연구학회가 성립되고 학술지 『한국학보』를 발간하면서 대만 한국학의 중심점 역할을 담당했다. 그뿐 아니라 정기적인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기타 지역의 한국학 연구자들과도 교류를 이어왔고 이를 통해 세계 다른 나라의 한국학 현황도 주목해왔다.

1990년대초 대외적으로 국교단절과 탈냉전의 기류, 대내적으로 38년간의 계엄해제와 정치민주화의 진일보한 발전 및 대만인 중심의 정당성립 등 중국 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대만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 한국연구 역시 역사와 문화 친연성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한중관계사연구보다 동등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특히 한국과 대만의 유사한 근현대사 역사경험에 입각한 비교와 대조연구로 기울어졌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금융위기를 빠져나온 한국이 문화산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한국대중문화인 한류가 대만사회에 급속히 전파되었고 지속되면서 2000년 이후 한국대중문화의 특성과 대만사회에 가져온 영향, 한국문화산업의 추진방식과 정책 논리 등이 새롭게 한국연구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한류의 대중영향력은 한국어 교육열을 불리와 한국어문학과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많아졌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중국어 사용자에게 효과적인 언어교육의 방식과 콘텐츠 개발, 교과과정의 설계와 평가체계의 도입 등 한국어 수요가 늘면서 한국어 교학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체계 역시 한국연구의 한 분야가 되었다.

이렇듯 대만의 한국학은 각 역사단계에 따라 중점을 달리하며 시대의 요구에 대응해 왔다. 특히 1990년대 이래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대립하며 독자적 노선을 걷고 있으며 한국 연구 역시 이러한 변화에 따라 그 내용과 시각에서 변모를 보이고 있다. 각 분야에서 대만학이 성립된 만큼 한국 연구도 한중관계사의 시각에서 벗어나 대만학에 객관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방향으

로 나아가지 않을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학 인재의 육성도 필요하지만 자국에 대한 이해를 가진 인력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서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연구주체의 설정보다 민간의 자발적 수요와 연관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의 갈수록 빈번한 학술교류와 인적 왕래도 대만 한국학의 면모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학자들이 직접 대만학계에서 발언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앞으로도 지속될 인터넷 등 전지구적 네트워크의 영향 아래 전지구화와 동시에 지역담론의 수요가 증가하는 이때 동아시아 지역의 실제적 이웃으로서 대만과 한국은 깊이 있는 상호이해와 인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대만의 한국학은 상술한 기존 연구를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董作賓 外, 『中韓文化論集』(二),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1955.11.
- 胡春惠 外, 『近代中韓關係史資料彙編』第一冊-第十二冊, 國史館, 1987~90.
- 黃寬重, 『中韓關係中文論著目錄』, 漢學研究資料及服務中心, 1987.6.
- \_\_\_\_\_, 『中韓關係中文論著目錄』增訂本, 中央研究院東北亞區域研究, 2000.7.
- 黃寬重·張襄怡, 『海峽兩岸中韓關係史研究的回顧與展望』,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韓國學報』16期, 2001.
- 金潤泰, 『由韓國學者角度看台灣的韓國研究』, 中央研究院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 『亞太研究論壇』第三十期 2005.12.
- 張存武, 『近代中韓關係史的研究』,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六十年來的中國近代史研究』, 1988.

## Review and Prospects of Korean Studies in Taiwan

Tseng, Tien-fu\*

Taiwan and Korea are not only geographically adjacent neighbors, but also share a long historical exchange and cultural base. Particularly, being crucial members of East Asia, they have a common near-modern historical experience of colonialism and the Cold War. Due to this relationship, there has been an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from an early age, and Korean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ccordingly. The paper divides the Korean studies in Taiwan after liberation into three periods, examines the research focus and trends of each period, and predicts future studie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rom the 1950s to the 1970s during the Cold War period, mainly based on the necessity of anti-communist solidarity, the focus was on the study of the ancient history of Kore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dern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and China. Second, from the 1980s to the 2000s, research on Korean language and Korean literature was initiated by experts trained through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ird, from the 2000s to the present, the focus was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to meet the Korean language learning demand triggered by the rapid spread of the Korean Wave, and overall research on the Korean cultural industry.

**Key words** : Taiwan, Korean Studies,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Studies*

논문투고일 : 2021년 4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5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5월 20일

---

\* Soochow University, Taiwan